

꼬마 4번 타자

이영 지음

예림당/A5신/110면/2500원

4번타자 철민이는 야구화를 사기 위해 매일 아침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 받은 돈을 알뜰히 저금하는 구두쇠다. 돈을 꾸달라는 큰형의 부탁에도 꿈쩍하지 않던 철민이는, 어느 날 오후 동네 놀이터에서 꼬부랑 할머니 한 분과 마주친다. 독감에 걸린 할머니는 치료비가 없어 놀이터 끝에 자리한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망설이고만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병원 안으로 들어간 철민이는, 집으로 달려가 돼지저금통을 아낌없이 들고 나온다.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의 이야기 「꼬마 4번 타자」 등 5편의 동화를 수록했고, 올 컬러 삽화를 곁들였다.

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

어린이교육연구회 엮음

현암사/A5신/256면/2300원

엄마가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아빠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때는?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나 자신이 싫어질 때는 언제인가? 나의 최대 고민은? 등 어린이의 생각과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모음.

현직 국민학교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교육연구회는 4만명의 어린이가 글들을 모으고 추려내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모음①-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모음②-선생님 선생님!」 두권으로 펴냈다. 어린이들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등 다양한 생각과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소리없는 말

김하인 지음

규장문화사/A5신/94면/1500원

일곱살 된 순구는 늘 심심하고 지루한 날들을 보낸다. 과일 행상을 하는 엄마는 언제나 밤이 으스스해서야 집으로 돌아오고, 가지고 놀 장남감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불 보따리를 어깨에 멘 호리호리한 아저씨가 순구 또래의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옆방으로 이사를 온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민희와 친구가 된 순구가 소리없는 말을 통해 우정을 나눈다는 「소리없는 말」을 비롯해, 시골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대나무 피리를 불며 가정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대진이의 소망을 그린 「대나무 숲」 등 4편의 정감있는 단편동화들을 수록했다.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라

야누스 코르차크 지음 / 宋春眞 옮김

돌샘/A5신/각권 180면내외/각권 2000원

국왕의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잇게 된 매트는, 어느 날 궁전 뒤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던 페레크와 친구가 된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뿐, 주변의 세 나라가 매트 왕에게 동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용감한 파울 정복왕의 증손자 매트는, 자신을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신하들을 빼들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페레크와 함께 몰래 궁전을 빠져 나가 용맹을 떨친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 매트는, 신하들에게 자신은 아이들을 위한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갖가지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폴란드 동화작가 코르차크의 작품.



오누이 나비와 쌍둥이 빌딩

김병규 엮음

대일출판사/A5신/252면/2500원

산동네 공터는 모든 동네 아이들의 운동장이다. 그러나 이 공터에 아파트건설공사가 시작되자 놀이터를 빼앗긴 아이들은 활기를 잃고 시무룩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들은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도저 소리가 잉잉거리던 공터가 잘 닦아진 운동장으로 변해 있었던 것. 동네 한 구석에서 운동용구와 장난감 등을 고치던 털보할아버지가 사실은 장남감회사의 사장이고, 아이들을 위해 그 공터를 사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산동네에는 훈훈한 온정이 꽃핀다는 「산동네 운동장」 등 15명의 창작동화 29편을 수록했다.

꿈 속의 집

최시병 지음

화술/A5신/200면/2500원

사진작가이며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첫 동화집.

동래시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만과 태정이 4차원의 시계의 힘을 빌려 320년 전의 동래부사 유심을 만난다는 내용의 「꿈 속의 집」, 부처의 은덕으로 왜구의 침략을 물리쳐 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라 금정산 범어사에 얽힌 이야기 「금빛 샘의 잉어」, 김밥장사, 구두닦이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하며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점동이의 생활을 엮은 「혼자서 크는 나무」 등 불교색과 향토성이 짙은 중단편 9편을 수록했다. 화술어린이문고

마리오의 친구들

쥘리 셸든 지음 / 설영환 옮김

동국출판사/A5신/150면/2500원

치열한 생존경쟁의 도시 뉴욕의 맨하탄.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의 타임 스퀘어 한 구석에서 가날프면서도 웬지 마음을 끄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나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작고 더러운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한 신문팔이 소년 마리오는, 귀뚜라미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스럽게 보살핀다. 마리오의 집에 기거하게 된 귀뚜라미 체스터는 생쥐 터키, 고양이 해리와 친구가 되고 노래 솜씨를 뽐내 마리오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 그의 뛰어난 노래솜씨가 점차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져, 신문 방송에 소개되는 등 갑자기 유명인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메마른 도시인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IQ퍼즐

신희승 지음

대교출판/A5신/190면/2000원

퍼즐을 풀어나감으로써 산수의 재미있는 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꾸민 문제집. 국민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3단계로 나누어, 토끼 퍼즐(30문제) · 여우 퍼즐(26문제) · 호랑이 퍼즐(13문제) 등 모두 69문제를 수록했다.

성냥개비놀이, 종이 자르기, 같은 모양 만들기 등의 퍼즐은 어린이가 직접 모양을 만들어 풀수 있도록 배려했고, 지루함을 달기 위해 중간 중간 숨은 그림 찾기와 미로 찾기도 실었다.

어린이 스스로 끈기있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 자연스럽게 산수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서울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콜롬부스의 달걀

김모세 지음

민서출판사/A5신/236면/2500원

태양국민학교 6학년 개나리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전에는 '공부하라!'라는 말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창 밖에 쌍무지개가 나타나자 선생님은 다들 책을 덮고 눈을 두 배로 크게 떠서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였다. 무지개를 보고 감탄한 줄 아는 어린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무지개를 보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도 처음으로 해내기는 어렵다는 교훈을 담은 「콜롬부스의 달걀」 등 웃으면서 읽는 철학동화 10편을 수록했다.

꿈꾸는 아이

박성배 지음

아동문예사/A5신/204면/2200원

준식은 넓은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거리와 눈이 보통 아이들보다 크며 고집이 세고,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다.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싫어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창고 속에 숨어 있던 준식은, 또다른 자신의 모습인 준식이를 따라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서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 모험을 겪어나가면서 용기와 우정 그리고 지혜를 배우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씩씩한 어린이가 된다. 환상에서 깨어난 준식은 이미 친구들의 놀림에 기가 죽고 바보짓만 일삼는 소심한 어린이가 아니라 의젓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바보가족

안다솔 지음

사사연/A5신/224면/2500원

일기시집 「만남의 반지름 지우고」를 발표하여 "시의 내용들이 기성시인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상상력과 생각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았던 안다솔군(방배중학교 1학년)의 일기모음.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무렵까지 쓴 일기 중에서 자신의 시와 맥이 통하는 내용의 것들을 추려 모았다고 안다솔군은 책머리에서 밝힌다. "국민학교 1, 2학년 시절이 가장 순진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를 꼬집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린이답지 않게 성숙하다.

사랑구조대

A. 린드그렌 지음 / 한기상, 김윤희 옮김
藝河/A5신/260면/2800원

남자친구 요하임의 터무니없는 오해로 고민에 빠진 누나 프리카를 위해, 장난꾸러기 소년 라스무스는 친구 폰투스과 함께 '사랑의 희생자를 위한 구조대'를 결성하고 한밤중 요하임이 자는 방으로 샅머시 숨어들어간다. 누나 프리카의 자존심을 구하기 위해 폰투스의 앨범에서 그녀의 사진을 빼내오려고 했던 것. 그러나 엉뚱하게도 그곳에서 값비싼 골동품 술잔을 훔치려는 도둑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스웨덴의 작은 마을 베스탄빅이 생겨난 이래 최대의 사건에 말려들게 된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



꽃꽃 한 송이

서오근 지음

화술/A5신/116면/1800원

파도 속에 떠 있는 외딴 작은 섬 섬에는 초가집이 한 채 있지요. 유채꽃, 온 섬을 노랗게 덮은 그 속에 초가 삼간 한 채 있지요. 육지 벗들 들으라고 마음을 모아 필리리, 필리리 피리 불어요. 초가집 돌각담 밑 눈이 큰 소년 필리리, 필리리 피리 불어요. 「외딴섬 소년」 중에서 아동문학가 서오근씨의 동시집.

부싯돌

고동영 지음

한뿌리/A5신/202면/2800원

어린이들의 사고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환인이야기에서부터 삼국통일에 이르기까지를 쉽게 풀어 쓴 아동용 역사책. 「나반과 아반」 「열두나라 아홉족속」 「환인을 임금으로」 「단군이 나라를 세움」 등 77편의 짧은 글들로 엮였으며, 갈라 삽화를 수록해 어린이들의 이해와 흥미를 돋구고자 했다. 또한 각 이야기가 실려 있는 역사책들을 끝부분에 밝히고,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에 대한 해설, 사고사 연표, 참고한 책들도 상세하게 기록해 어린이들의 역사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했다. 부제 '이야기로 엮은 거리의 뿌리'.

방망이 삼총사

이상기 지음

한국서적공사/A5신/192면/2000원

1986년 9월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자 각국의 체육선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욕심꾸러기이다 장난꾸러기인 한아름은 아시안게임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아버지 덕에 중국과 일본에서 온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동양 삼국에서 모인 방망이 삼총사는 동서남북으로 활극을 벌이며 우정을 꽃피우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경에서 다시 만나 마약 밀수범을 일망타진하는 등 눈부신 공적을 세운다. 국적이 서로 다른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우정을 소재로 하여, 각 나라의 독특한 국민성과 국제간의 이해와 협조의 중요성을 일깨운 장편동화.

보리밭길

이정화 지음

대교출판/A5신/200면/2500원

'보리밭' '나뭇잎 배'의 작곡자로 잘 알려진 윤용하.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에 태어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동심을 노래했던 그의 삶과 음악세계를 철저한 취재와 고증을 거쳐 새롭게 엮은 전기. 한평생 깨닫힌 마음과 정열을 간직했던 윤용하의 삶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놓인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교훈을 전하고자 했다. 윤용하의 고향인 황해도 은율 시절에서부터 그가 죽은 뒤의 추모 움직임까지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으며, 부록으로 윤용하 연보·대표작품·참고도서 등도 수록했다. 선구자 시리즈 제1권.